

파룬궁수련생 왕즈원 출국하여 딸과 상봉하려다 중공에 저지 당하다

[밍후이왕] 바다를 사이 두고, 18 년이나 지난 후 미국 시민권자인 왕샤오단(王曉丹)부부는 중국공산당의 겹겹의 포위와 감시망을 뚫고 베이징에 가 부친을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했다. 왕샤오단 부부는 미행하는 중국공산당 스파이들을 뿌리치고 부친 왕즈원(王治文)을 대신해 아버지의 미국비자 발급 등 이민을 위한 일체 출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광저우 해관을 통과하던 중 그 일각에 해관 공무원이 왕즈원의 여권을 잘라버려 출국할 수 없었다. 근일 왕샤오단 부부는 핍박에 의해 미국에 돌아오게 되어 고독하게 중국에 남겨진 왕즈원은 또다시 스파이들의 포위 속에서 유랑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왕즈원은 중국 ‘파룬따파(法輪大法) 연구회’ 전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중국 철도부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1999 년 7 월 20 일부터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개시했다. 당일, 왕즈원은 집에서 불법 체포됐고, 그해 12 월 27 일 베이징 법원은 비공개 재판으로 불법 판결 16 년 형을 선고했다. 15 년 넘게 감금된 동안 그는 각종 고문을 받아 이가 다 부러지고 10 개 손가락의 손톱은 이쑤시개로 뚫어 졌으며, 7 일 7 박을 재우지 않는 적도 있었고, 28 kg 되는 수갑과 족쇄를 차고 독방에 감금되어 벌을 받았으며, 쇠골도 부셔졌었다.

불법으로 15 년 넘게 감금당한 왕즈원은 2014 년 10 월 18 일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하지만 또 베이징 시 시청 구 ‘610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에 의해 직접 창핑 구 세뇌반(강박으로 수련생의 신앙을 포기 하게하는 검은 감옥)에 보내져 계속 박해 받았다. 후에 국제상의 압력으로 일주일 후인 10 월 25 일 왕즈원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



뉴욕 파룬궁수련생들은 8 월 11 일, 뉴욕 중국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거행해 중공당국에서 왕즈원을 출국시켜 부녀가 상봉하게 할 것을 호소했다. 앞줄 맨 오른쪽 첫번째는 왕즈원의 딸 왕샤오단이고, 오른쪽 두번째는 왕즈원의 사위 제푸(杰夫)이다

만 중공의 특무로부터 24 시간 미행, 감시당 했고 소란을 당했다.

그때 19 세인 왕즈원의 외동딸 왕샤오단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중이었다. 부친이 납치되고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고 그는 부친을 구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왕샤오단은 미국공항에서 기자에게 “이번에는 일체 수속이 모두 되었으니 꼭 부친을 모셔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아주 기쁘고 낙관적이었어요.” “그런데 해관을 나올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의 여권을 잘라버렸어요. 해관의 공무원은 여권이公安 내부에 의해 이미 무효 처리된 상태라고 말했어요.”라고 밝혔다.

여권을 잘라버린 그날 왕샤오단은 붕괴된 느낌이었다. 그들은 부득이 미국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고 68 세가 다 되는 부친은 가능하게 박해로 인해 유리걸식 할 수밖에 없으며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2016 년 8 월 10 일 해외 파룬궁수

련생들은 잇따라 현지 중국영사관에 찾아가 중공이 왕즈원이 미국에 딸과 상봉하는 것을 저지 한데 대해 항의했다.

파룬따파학회 양썬(楊森) 회장은 시카고 중국영사관 앞 항의집회에서 “이는 장쩌민, 쩡칭훙 등 파룬궁 박해 주범들의 소행”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즉각 박해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장쩌민, 쩡칭훙 등의 자들과 함께 순장되지 말 것을 중국공산당 각 기관 관리들에게 정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왕즈원에게 새 여권을 발급해주어 그가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중국 현 정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왕즈원이 하루빨리 박해에서 벗어나 미국에 와서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

美 종교자유보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비난, 여러 차례 밍후이왕을 인용해 왕즈원에 관심



왕즈원의 최근 사진

[밍후이왕] 8월 10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최신 2015년도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는 종교 자유를 엄중하게 침해하는 ‘특별 관심국가’로 계속해서 중국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파룬궁(法輪功), 천주교와 인권변호사 등 단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속적인 박해를 비난했으며 아울러 전 중국 ‘파룬따파(法輪大法) 연구회’ 책임자

중 한 명인 왕즈원(王治文)이 감옥에서 석방된 후 처한 처지에 대해 주목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보고서를 발표해 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다. 1999년 이래 중국은 줄곧 ‘특별 관심국’으로 지목되어 왔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는 또 수차례 밍후이왕(明慧網)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파룬궁은 나라와 인민에게 백가지 리로울 뿐 한가지 해로운 점도 없습니다

1998년 국가체육 총국은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둥성의 의학계 전문가를 조직하여 3만여명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5번의 의학조사에서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총 유효률은 98 %라고 표명했다. 동시에 부분적 로간부들 역시 상세한 조사를 거치고 “파룬궁은 나라와 인민에게 백가지 리로울 뿐 한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파룬궁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파룬궁 서적은 30여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발행 하였다. 리홍쯔 선생과 파룬따파가 받은 여러 나라 정부의 여러 가지 표창, 지지 의안과 편지는 3000건을 초과 했다. “쥘, 썬, 런 (真、善、忍—진, 선, 인)”의 신앙은 세계 각 민족의 애대와 존경을 받고 있다..◇



도판: 2015년 원단, 대만 대중 파룬궁 수련생들이 시정부광장에서 연공

지린성 연길 시 왕옌, 박해로 억울하게 사망

[밍후이왕] 파룬궁수련생 왕옌(王燕)은(녀) 지린 성(吉林省) 연길 시 조양천 진(朝陽川鎮) 장청 채소사 1 대 사람이다. 파룬궁수련을 견지하고 민중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악독한 경찰에 납치됐고, 아울러 지린 성 여자노동교양소로 보내져 박해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건강을 회복할 수 없어 결국 2016년 7월 26일 한을 품은 채 사망했는데 겨우 47 세였다.

2005년 4월 20일, 왕옌은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발당해 납치된 후 지린 성 여자노동교양소에 보내져 18개월간 불법 노동교양 당했다. 그 기간에 강제세뇌, 노예노동 등 박해를 받았다.

2011년 9월 19일, 왕옌은 집에서 연변주 공안국의 악독한 경찰 10여

명에게 납치돼, 대량의 대법자료와 컴퓨터 등 개인 물품을 불법 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15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불법 노동교양 기간 악독한 경찰은 파룬궁수련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왕옌을 여러 차례 독방에 가둬 박해를 진행했다. 전기 곤봉으로 전기충격 가하기, 장시간 세워두기, 강제 세뇌, 노예노동 등 고문을 가했다. 잔혹한 박해로 왕옌의 신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발부터 허리 부위까지 전부 수증 상태가 나타났다.

노동교양소에서 나온 후, 왕옌은 이미 박해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고 가무도 할수 없었으며 더욱이 신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는데 발과 다리는 심각한 부종 상태가 나타나 행동이 불편했고 얼굴색이 창백했고 머리칼은 대량으로 빠지고, 구강은 문드러지고, 기침을 심각하게 했으



왕옌

며, 정상적으로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되어 다만 약간의 미음으로 간신히 지탱했다. 2016년 7월 26일 이른 새벽 3시 40분에 왕옌은 아직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택시로 생계를 유지하는 남편만 남긴 채 억울하게 사망했다◇